

IJS JAPAN REVIEW



한·일 언론인의 창(窓)

한국 저출산 문제의 해법 - 지방 분산과 직업관의 다양화

도요우라 준이치(豊浦潤一) | 요미우리 신문 국제부 편집위원

# 한국 저출산 문제의 해법

## - 지방 분산과 직업관의 다양화

한국의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은 일본에서도 크게 거론됐다. 일본의 1.26(2022년)과 비교해도 현격히 낮기 때문이다. 한국 여성들에게 1987년 민주화 이후 얻은 자유가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의 가정과 육아 환경의 어려움은 더 이상 “결혼=안주(安住)”가 아니게 되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에는 0.6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00년 뒤 지구에서 한국인이 소멸한다는 SF영화 같은 언설이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다. 저출산을 막으려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상과 지방 분산의 나라 만들기가 필수적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필자의 견문도 섞어가며 한일 저출산 문제의 경위와 미래를 살펴 보고 싶다.

### 인식의 갭

한국의 저출산이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에서 처음 거론된 것은 2003년 2월이었다. 짧은 기사였다. 2월 19일자 석간에 「2100년 한국인구 절반」이라는 내용이 게재되었다. 한국 정부는 2000년대부터 저출산 대책에 나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생각하면 일본은 한일 양국에 공통되는 과제로서 일찍부터 한국의 저출산에 주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저출산이 여성의 사회 진출과 함께 진행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한일의 저출산 비교를 연구하는 사사노 미사에(笹野美佐恵) 이바라키대(茨城大学)교수에 따르면, ▽1990년대에 여성의 학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1997년의 IMF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고학력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단번에 진전되었으며, ▽2001년에 한국에서 여성부가 설립된 이후, 여성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 법정비가 진행되었다. 오랫동안 여성을 가부장적 제도로 묶어온 호주제 폐지(2005년), 간통죄 폐지(2015년), 2018년 이후 미투 운동 등 여성의 권리 획득 운동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사회 변화가 압축적으로 나타난 결과, 젊은 여성이 품는 가치관과 기존의 보수적 가치 규범 사이에 큰 갭이 생겨 출산율 저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 자유

필자도 1991년 처음 한국을 찾은 이후 자유를 구가하는 한국 여성의 모습을 많이 보았다. 필자는 게이오기주쿠대(慶應義塾大学) 재학 중 이화여대에서 유학 온 1960년대 후반에 태어난 여학생들과 가까워졌다. 이들은 일본어를 습득하고 일본과 한국에서 소비생활과 문화적 체험을 만끽하고 있었다.

1990년대는 남존여비의 전통과 밝게 싸우는 여성을 여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와 드라마로 넘쳐났다. 그들은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라고 필자에게 권했다. 80년대 한국영화가 억압된 여성을 그린 무겁고 음울한 작품이 많았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여성의 권리의식이 단기간에 극적으로 향상된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 여성의 자유롭고 활달한 모습은 당시 일본 여성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말 조선을 여행한 영국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이 저서 『조선기행(朝鮮紀行)』<sup>1)</sup>에서 고귀한 여성은 결혼 후 외출이 일절 허용되지 않았다고 기록한 것이나,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줄곧 낮았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 여성들은 90년대에 역사적인 대변혁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논문으로 정리해 2000년 연세대 어학당 졸업 논문으로 학급에서 발표한 적이 있다. 여성 담임교사는 만족스러운 듯 내 발표를 듣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논문이었습니다”라고 극찬했던 기억이 난다.

연세대 어학당 교사들은 거의 전원이 여성이었다. 유교문화가 우리 사회에 가져온 많은 폐해를 지적하며 당시 화제가 됐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수업 중에 거론하며 유교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교사도 있었다. 필자가 “우리 사회가 유교를 잃으면 혼란스럽지 않느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 이제 유교는 백해무익한 케케묵은 사상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그 선생님은 여성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사는 것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3년 뒤 서울특파원으로 부임하여 2022년까지 햇수로 9년간 한국에서 생활했다. 취재로 알게 되는 한국인 기자, 외교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자 중 여성의 비율이 점점 증가했다. 신문사에서 출세하는 여기자도 늘고 각 회사 여성 부장들이 모여 만든 여성 부장 모임 조직도 생겼다.

현대 한국의 엘리트 여성들이 어머니나 할머니 세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직업인으로서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만큼 아내, 며느리, 어머니로의 선택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

1) 편집자 주: 원 제목은 Korea and Her Neighbour로 일본어판 제목은 『조선기행』, 한국어판 제목은 『한국과 이웃나라들』 또는 『조선과 이웃나라들』로 번역되었다.

## 일본과의 차이점

일본의 결혼 적령기 여성은 한국만큼 급진적인 비혼주의가 아니다.

일본의 2023년의 출생아 수(속보치)는 역대 최저의 75만 8631명으로, 저출산의 조기 해결이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일본인들이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도 한국과 비슷하다. 「경제적 부담」, 「육아에 자신이 없다」, 「자신의 시간을 즐기고 싶다」는 것이다.

기시다 수상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 수당의 확충, 육아 휴업 급부의 증액을 내걸고 있다.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접하는 결혼·출산 적령기의 커리어우먼을 보면 결혼, 출산, 육아를 포기하면 서까지 일을 택하는 경우는 적다. 결혼이나 직장이냐를 놓고 헤맨 경우 결혼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앞서 언급했던 사사노 씨가 지적하듯이 일본인 여성은 「보수화」하고 있다. 일본도 한국도 저출산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둘째를 낳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결혼하지 않는 한국과는 다른 것 같다.

일본의 저출산이 한국만큼 급격하지 않은 이유로 ▽남성의 경제적 안정, ▽지방 분산, ▽가치관의 다양화를 고려할 수 있다. 즉, 일본에서는 한국처럼 정해진 가치관 속에서 경쟁사회를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쿄에서 초등학교부터 입시학원을 다니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과 지방에서 공립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서 취업해도 삶의 질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교세라(교토시·京都市), 도요타자동차(아이치현 도요타시·愛知県豊田市) 등 지방 도시에 본사를 둔 대기업도 적지 않다. 지방에는 신문사, 은행, 그리고 관청도 있다. 도쿄의 와세다대(早稲田大学), 게이오대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U턴하여 취업하는 사람도 드물지 않다.

## 지방 분산

한국에서는 대학과 직장도 집은 서울이어야 한다는 믿음이 강하다. 지방은 부정적인 이미지 밖에 없는 듯하다.

한국 신문기자들은 입사하자마자 서울 본사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한다. 일본 신문기자는 지방지국에서 3-5년의 긴 사전 준비 기간을 갖는다. 도쿄나 해외에서 근무한 후에 다시 지방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필자 자신도 첫 번째 서울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후쿠오카에서 6년간 근무했다. 집세가 싸고 널찍한 주택, 풍부한 식생활, 산이나 바다나 온천에서 보내는 휴일, 스트레스가 적은 인간관계, 느긋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역사와 특색이 있는 지역의 축제 등 기자의 일로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인간의 생활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다. 하지만 한국인 기

자 친구들은 지방이라며 필자를 안쓰러워 했다. 필자가 회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해 연민의 시선을 보내오는 사람도 있었다.

서울의 일극집중(一極集中)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과 관청을 지방에 분산하는 것이 저출산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길이 아닌가. 예를 들면 정치, 행정 기능을 가진 수도가 대전에 있고, 거기서 KTX로 한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전주, 동대구 등에 SKY를 비롯한 유명 대학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흩어져 있으면 어떨까. 적어도 부동산 가격 폭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지방 도시의 매력과 KTX라는 인프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서울에 주재하던 2년 전만 해도 휴일마다 KTX를 타고 평창, 강릉 등으로 발길을 돌렸다. 목적지에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한다. 놀라운 것은, 역 주변이 개발되지 않고 거의 손대지 않은 채인 것이다. 평창역은 청량리에서 약 1시간이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 앞에는 편의점은 고사하고 가게가 하나도 없다. 주변의 계류변에는 야영장이 산재(散在)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자연 속에서 휴일을 보내는 캠핑객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지방 도시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이를 보낼 학교와 학원이 없는 것이 이유일 것이다. 통신제 고등학교나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학원이 생기면 서울 주민들은 교외로 옮길까.

한국 정부는 2006 ~ 2021년 무상보육과 아동수당 확충, 육아휴직제도 강화 등 저출산 대책에 나서 총 280조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출산육아 인센티브를 줘도 여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출산장려금을 주는 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주는 식의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같은 이유로 여의치 않을 것이다. 다른 어프로치로서 지방 분산과 원격 교육 인프라의 정비에 투자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

## 성공모델 다양화

인생의 성공모델 다양화라는 의식 변혁과 이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중졸 사장이 성소수자, 외국인, 전직 깡패 친구들과 음식 체인을 성공시키는 TV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는 한국에 앞으로 필요한 것이 다양성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의사, 변호사, 공무원, 대기업 직원 외에도 명성과 부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오피니언 리더가 필요하다.

학력 지상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이명박 정부가 제조 현장에 필요한 장인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박근혜 정권에 들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 지원이 확충됐다. 필자는 큰 기대를 걸었지만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지금은 오히려 무슨 일이 있어도 의사를 목표로 하는 ‘스카이 캐슬 부자’가 증가해 버렸다.

사회에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없는데도 부모나 교사가 대학을 목표로 하라고 자녀를 부추기

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한국에서도 나온다. SKY에 들어가도 문과 전공의 경우 취업이 어려운 시대라면, 행복해질 수 있는 다른 선택지를 어른들이 제시해 줬으면 한다.

## 한국 탈출

2003년 취업난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취재했을 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즉효약은 한국에 없다. 일본이나 중국에 유학·취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그 후, 일본에서의 유학·취업 지원에 임했다. 일본에서의 취직을 위한 설명회가 각지에서 열려 장사진을 이뤘다. “나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일본 기업을 돌아다니며 한국 유학생들의 취업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주일 한국대사도 있었다. 실제로 도쿄의 대학에서 유학하던 지인인 한국인 유학생들은 잇달아 일본의 유명 기업에 취직했다. 입사하면 60세까지 일할 수 있고 주택보조 등 복리후생도 받을 수 있다. 필자도 그때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일본에서 취업·결혼하는 것이 경쟁을 강요받는 한국보다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래서는 한국의 인구 감소는 가속화되고 만다. 한국 정부의 시책은 자기부정이자 해결의 포기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이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야만 저출산 해결의 길이 나타나지 않을까.



**도요우라 준이치(豊浦潤一)**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 국제부 편집위원

<IJS일본리뷰>는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이슈 및 한일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발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기획하고 (재)학봉장학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 필진의 글은 일본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